

## 대한위암학회 회장을 마치며

### - 위암학회의 사명과 비전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손 수 상

대한위암학회는 현재 회원 561명으로 단일 장기의 암인 위암에 관한 학술적 정보와 연구 및 임상경험을 연구 발표하여 국제학회를 유치하기도 하였고 이제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국제학회에서도 주도적 회원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여러 회원들이 아시다시피 대한위암학회는 1989년 10월 6일 서울대병원에서 김진복 교수님의 주선으로 제1회 모임을 시작으로 1992년 7월 31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연구회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졌다.

이런 연구 모임으로 위암 기재규약안의 공청회와 기재규약의 전산화 디스켓을 개발하였으며 그 후 각 병원에서 이를 검토한 후 1993년 7월 9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00여 명이 모여 전체의견수렴을 한 후 각 지역별 운영위원들을 위촉하여 활동하였다.

1993년 11월 6일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종료에 이어 창립총회를 열어 이제까지 운영위원장이시던 김진복 교수를 회장으로 대한위암연구회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의 큰 행사로는 1994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병원과 롯데호텔에서 UICC Workshop on Gastric Cancer를 개최하여 세계적 위암 대가들의 Live Surgery Demonstration을 하는 등 뜻있는 workshop을 개최하였다.

1996년 9월에는 전 세계 200여 명의 위암연구자들이 모여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Gastric Cancer: 12th International Seminar를 개최하여 위암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대한위암연구회는 1996년 11월 9일 대한위암학회로 정식 발족되었으며 초대회장에 김진복 교수, 부회장에 김세민 교수 및 여러 이사들이 취임하였으며 1999년 4월에는 대한위암학회 제10회 학술대회와 더불어 제3차 국제위암학회(3rd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Congress)가 서울롯데호텔에서 전 세계 8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김진복 회장은 제 3대 국제위암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000년 4월 22일 제 11차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민진식 교수가 신임회장으로, 김진복 교수는 명예회장으로, 계명대 손수상 교수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때부터 상임이사회를 채택하여 이종인, 주홍재, 김용일, 조용관, 권성준,

목영재, 노성훈, 양한광, 최석렬 교수 등을 임명하여 제 2기 위암학회를 이끌게 되었다.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원의 10%에 해당하는 이사제를 도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원 보고와 책임자 권한을 갖고 일하게 되었다.

학술대회로만 진행되다 학술지 발간을 준비하여 2001년 3월 드디어 대한위암학회지 제1권 제1호가 종설 1편, 원저 10편 증례 1편으로 역사적인 출간을 하게 되었다.

민진식 회장은 3년 동안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은 상향식으로 받아들여 원만히 처리하였다. 또한 김진복 명예회장님께서 거금(1억)을 학회에 회사하여 김진복 교수 기금 초청강연을 제정하고 위암분야에 세계적 권위자들 매년 초청하여 강연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New York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위암학회에서도 김진복 명예회장님이 대회장으로 수고했으며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많은 발표와 성황을 이루었다.

2002년 상임이사회에서 임원의 임기를 이제까지의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회장, 부회장은 단임으로 하는 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2003년 4월 19일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계명대 손수상 교수, 부회장은 아주대 조용관 교수, 감사에 이종인, 김영진 교수가 상임이사에는 기획 김인호, 학술 노성훈, 총무 목영재, 편집 권성준, 정보전산위 양한광, 재무 최석렬, 홍보 김성, 국제 하우송 교수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시대적, 국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기획, 국제이사제를 신설하였다. 기획에서는 여러 규정, 장기계획, 국제는 국제연자초청 및 회신 등 국제교류에 더욱 능동적 처리를 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활동하였다.

2003년 5월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5차 국제위암학회가 개최되어 국내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의와 발표를 하였다. 이때 목영재 총무가 국제위암학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특징적인 상황으로는 그동안 학회의 염원사업인 대한위암학회에 2004년 3월 9일 정식 가입하였다.

15개 학회가 신청하였는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역대회장님 이하 전 임원과 모든 회원들의 염려와 격려 덕분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대한위암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전문의 자격시험에 자격을 얻게 되었다. 초창기부터 학회지 편집을 담당한 권성준 편집위원장께 특히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학술지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2004년 5월 1일에는 대한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의 초청강사로 본 위암학회에 의뢰된바 국제위원회(위원장 하우송)와 여러 임원들의 합의로 제7차 국제위암학회회장으로 내정된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의 Joaquin Gamma-Radrigues 교수를 초청하기로 결정하여 외과학회에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혹은 2011년 서울에서 국제위암학회를 유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마침 외과학회 50년 사상 브라질교수의 초청은 처음이라고 학회당국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위암환자 기록양식 개발을 위해 정보전산위원회(위원장: 양한광)에서는 위암환자 전국선발조사로 2003년 10월에 시행하였고 대한위암학회 명의의 “위암환자 기록양식”을 개발하였고 2004년 5월 15일 서울대 의대 암연구소에서 “위암환자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개발”이란 주제로 일본 NCC의 Dr. Sano 등 여러 명의 연자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위암환자 수술의 수가는 항상 큰 관심의 대상이었고 종합병원의 경영과 개인 업적에 관계되는 바 보험위원회(위원장: 박조현)에서 상대가치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수가코드 재분류 및 항목신설을 신청하여 2004년 7월 23일 상대가치 검토소위원회에서 재분류 및 당위성을 선별 후 통과되었으며 향후 상대가치 개발기획단에서 검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중 다행은 2004년 6월 23일 의사업무량 개정작업에서 5% 상향조정된 것이다.

향후 행위별 직접비용 등의 현실화로 연구와 관심이 절대 요망된다.

우리나라 위암 진료권고안이 진료권고안 재정위원회가 학술위원회(위원장: 노성훈) 중심으로 2002년 12월 구성된 후 15회의 회의와 검정위원회를 거치고 합동 workshop을 시행 후 2004년 11월 20일 추계학술대회(대구)에서 확정되었으며 위암기재사항 설명서 개정도 위원회를 2004년 6월 18일 구성하여 각 유관학회의 협조를 얻어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2004년 10월 6일 국제위원회 주관 하에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제8회(2009년) 혹은 제9회(2011년) 국제위암학

회로 개최의향서를 국제위암학회 본부에 제출하였다.

아마 제9회는 유럽에서 열리고 2011년 개최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회발전의 활성화와 연구를 돕기 위하여 학술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수 논문 중 선정되는 한국로수종양학술상이 2001년 제정 시작되었고 학회기간 중에 발표되는 우수 연구논문을 선정하여 아벤티스 학술상도 2002년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재임 중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와 항암요법 연구회를 학회산하에 두기로 하였다. 복강경수술은 처음 담석증으로 시작되었으나 1995년 위수술은 국내에서도 처음 실시 후 2004년에는 1,000여가 넘는 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외과 의사들로 구성되어 연구, 토론되고 있다. 항암요법연구회는 대장항문학회, 한국유방암학회와 더불어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외과 의사의 항암요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암을 하려는 젊은 의사들은 위암을 연구, 진단, 치료하는데 더욱 매진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명(mission)을 갖고 위암학문을 진단, 치료, 개발 및 공동기관 연구를 통하여 치료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세계적 의료수준을 창출하여 세계최고의 연구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술 및 치료의 표준화를 정립하여 모든 회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발굴함으로써 대한위암학회가 세계위암학회를 주도하는 것을 비전(vision)으로 삼았으면 한다.

2005년 4월 9일 제4기 대한위암학회 총회가 열려서 아주대 조용관 교수가 회장에 김진복 교수가 명예회장에 손수상 현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원자력병원 이종인, 전남대 내과 류종선 교수가 부회장으로 성균관대 김 성, 경북대 유원식 교수를 감사로, 여러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상임이사로 하는 제4기 임원진이 출범하게 되었다. 모든 분들의 능력과 열성을 기대하며 학회에 큰 발전을 주리라 믿는다.

대한위암학회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학회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여 보면서 그 동안 성원하여 주신 김진복 명예회장님, 모든 일을 제치고 학회 일을 도맡아 하는 목영재 총무이사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과 모든 회원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 REFERENCES

1. 김진복. 대한위암학회 역사. 대한위암학회지 2001;1:1-3